

‘날씨 변수’ KIA 마운드 득인가 실인가



4연패 끝에 빠진 KIA가 14·1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롯데와의 2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이로 인해 복잡해진 선발 로테이션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눈길이 쏠린다. 최근 넥센전 승리 후 KIA 김기태 감독과 기쁨을 나누고 있는 헥터(오른쪽). <KIA 타이거즈 제공>

우천 취소 이어 미세먼지로 2경기 연속 취소 헥터·팻딘·한승혁 등 선발 등판 순서 복잡 충격 역전패 등 4연패 속 “차라리 잘 됐다”



‘날씨 변수’가 득이 될까 실이 될까? KIA 타이거즈가 14·1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14일에는 비가 문제였고, 15일에는 미세먼지가 경기를 막았다. 14일 경기가 취소됐을 때 KIA 덕아웃 분위기는 “차라리 잘 됐다”였다.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경기에서 내리 3연패를 당하고 온 KIA는 13일 롯데 자이언츠와 홈경기에서도 4-8로 패배를 기록했다. 9회 시작할 때만 해도 KIA의 연패 탈출이 이뤄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4-1에서 시작된 9회, 마무리 김세현이 무려 5실점을 하며 충격적인 역전패가 나왔다. 여기에 타선의 가장 믿을 만한 자원인 안치홍이 이날 경기 전 목에 담 증상을 호

소하면서 선발 라인업이 급히 변동되기도 했다. 쌀쌀한 날씨 속에 그라운드 상황까지 좋지 않았던 만큼 또 다른 부상을 걱정하던 KIA에게 이날 내린 비는 분위기 전환을 위한 단비가 됐다. 하지만 15일 경기까지 쉬어가면서 선발 로테이션 재편을 준비했던 KIA의 머리가 복잡해지게 됐다. 하늘의 방해가 없었다면 15일 경기에도 한승혁이 선발로 등판할 예정이었다. 지난 10일 을 시즌 첫 선발 등판에서 5.2이닝 3실점의 호투를 하며 4선발 어필쇼를 했던 만큼 한승혁의 선발 경기는 선발진 완성을 가능할 수 있는 무대로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두 차례의 경기 취소로 한승혁의 두 번째 선발 등판 날짜가 미정 상태가 됐다. 좋았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게 아쉽게 됐다. 여기에 17일 선발에도 물음표가 생겼다. KIA 김기태 감독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

되는 17일 LG 트윈스와의 리턴 매치에 헥터를 투입할 예정이었다. 헥터는 지난 12일 한화 원정에 선발로 나서지만 2회까지 58개의 공을 던지고 7실점으로 조기 강판됐다. 많은 공을 던지지 않았고, 헥터가 자원하면서 한 주의 시작과 끝을 헥터로 장식하려고 했다. 이러면서 선발 로테이션도 자연스럽게 재조정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팻딘의 등판이 이를 연속 미뤄지면서 화요일 선발을 놓고 KIA는 고민에 빠지게 됐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도 있다. 어깨 부상으로 재활 중인 임기영이 두 차례 퓨처스 리그 실전을 마치고 복귀 준비를 끝냈다. 지난 8일 상무전에서 3이닝을 소화했던 임기영은 13일 kt와의 경기에서는 4.2이닝을 던지면서 점검을 마무리했다. 직구 스피드는 138km가 기록됐다. 임기영이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하게 되면서 ‘선발 카드 재배열’이 LG와의 홈경기 그리고 두산 원정을 앞둔 KIA의 가장 큰 숙제가 됐다. 연이은 경기 취소가 KIA의 선발진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BO, 팬 보다 방송사 ‘눈치 보기’ 급급

KIA-롯데전 경기 시작 시간 24분 지나 취소 전날 ‘2시간 전 우천취소’ 비판 방송 탓인 듯

KBO의 소신 없는 ‘특정 취소’가 또 마 위에 올랐다. 1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가 미세먼지로 취소됐다. 챔피언스필드에서 미세먼지로 경기가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광주에는 12시를 기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그리고 오후 1시에는 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다. 올 시즌 광주 지역에 처음 발령된 경보였다. 경보는 대기 중 입자 크기 10㎛ 이하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할 때 발령된다. 경기 시작 시간인 오후 2시를 앞두고 경기장이 위치한 광주시 북구 임동의 미세먼지 농도는 414㎍/㎥까지 치솟았다. 육안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하다는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늘은 탁했다. 마스크를 하고 자리를 지키는 관중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KBO리그 규정 제27조 3항 다목에는 “경기개시 예정 시간에 강풍, 폭염, 안개, 미세 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을 경우 해당 경기운영위원회 지역 기상청(기상대)으로 확인 후 심판 위원 및 경기 관리인과 협의하여 구장 상태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충분히 경기를 취소하고도 남은 상황을 지켜보던 KBO는 오후 2시 24분이 되어서야 내려졌다. 뒤늦은 결정 탓에 이미 관중석에 자리한 1만 5000여명의 팬들은 미세먼지 속에서 경기 진행 여부를 기다려야 했다. 규정을 두고도 KBO가 바로 결정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방송사 눈치 보기’였다. 전날에도 KIA-롯데 경기는 열리지 못했다. 비가 계속되면서 그라운드 상태가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계 방송사는 팬들을 위해서가 아닌

한 판단이었다면서 이에 대한 비판 방송과 함께 현장에 없던 기자들을 내세워 비판 기사를 연달아 내보냈다. 오후 5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13일 경기의 우천 취소는 오후 3시 12분에 결정됐다. 경기장 관리 담당자와 김용희 감독은 내·외야를 한참 돌아본 뒤, KBO와 상의해 우천 취소를 결정했다. 이날 광주 평균 기온은 10.9도 쌀쌀했고, 오후에 바람이 강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았다. 또 내내 하늘이 흐리면서 그라운드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우천 취소 뒤에도 비가 몇 차례 다녀갔고, 날이 갠 15일 훈련 시간에도 경기장 곳곳에는 물기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흥행 보증 수표인 KIA와 롯데의 ‘빅매치’였던 만큼 우천 취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결국 특정 세력의 여론몰이에 KBO는 정작 팬들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 했던 15일에는 규정을 두고도 쉽게 미세먼지 취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팬’을 볼도 삼은 눈살 찌푸러지는 주말 챔피언스필드의 경기 취소 해프닝이었다. /김여울기자 wool@

기성용, 고향 꿈나무에 1천만원 기탁

아동센터에 광주FC 시즌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캡틴’ 기성용(스완지 시티)이 고향의 축구 꿈나무들을 위해 온정을 보내왔다. 광주는 최근 “구단 홍보대사이자 최대 주주인 기성용이 지역의 취약 계층 아동들을 위해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성용은 기탁금으로 광주 시즌권 250매를 구매해,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및 5개구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기성용은 “고향에 항상 도움을 주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 광주 FC도 돕고 지역 어린이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전달해주고 싶었다”며 “광주가 지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민구단이 되길 바란다. 일정이 된다면 다시 한번 경기장을 방문해 팬들과 만남을 갖고 싶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1989년 광주에서 태어난 기성용은 금호고를 졸업한 광주 토박이로, 2010년 광주 FC 창단 당시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보여왔다. 특히 부친이 광주 단장으로 선임된 뒤에



광주 FC 기영옥 단장(오른쪽)이 최근 북구 KT꿈동산센터에 찾아 기성용 선수의 광주 FC 시즌권 기탁을 전달했다. <광주 FC 제공>

한국 여자아이스하키 준우승 2부리그 승격 불발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2부리그 승격 티켓은 한국이 아닌 이탈리아에 돌아갔다. 한국은 15일 이탈리아 아시아고에서 막을 내린 2018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여자 세계선수권 디비전 1그룹 B(3부리그) 대회를 3승 1연장승 1패로 마쳤다. 한국은 승점 11을 획득, 이탈리아(승점 12)에 승점 1 차이로 뒤져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우승팀에 주어지는 세계선수권 디비전 1그룹 A(2부리그) 승격 티켓은 이탈리아가 손에 넣었다.

FC바르샤 32경기 무패 행진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강호’ FC바르셀로나가 발렌시아를 꺾고 38년 만에 정규리그 최다 무패행진 기록을 경신했다. 바르셀로나는 1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프누에서 열린 발렌시아와 2017-2018 정규리그 32라운드 홈경기에서 2-1로 이겼다. 이로써 바르셀로나는 이번 시즌 개막 이후 32경기 연속 무패(25승7무·승점

82)를 기록하며 단독 선두 자리를 이어갔다. 무엇보다 바르셀로나는 이날 승리로 지난 시즌 정규리그 32라운드부터 이어진 무패행진을 39경기로 늘리면서 1979-1980 시즌 레알 소시에다드가 작성했던 정규리그 최다 무패행진(38경기) 기록을 38년 만에 경신했다. 바르셀로나의 ‘골잡이’ 메시는 폴타인 출전했지만 어렵게 득점 사냥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수창초 춘계 초등야구 우승

수창초가 2018년 춘계 초등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 수창초는 최근 분당리틀구장에서 끝난 춘계 초등학교 야구대회 겸 회장배(제14회 전안후타령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예선대회에서 3전 전승으로 승리팀이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우승팀인 수창초를 포함해 7개 야구팀이 참가해, 리그전으로 진행됐다. 수창초는 첫째 날 서석초를 7-0으로 이긴 뒤, 둘째 날 학강초에 7-3으로 승리하면서 연승에 성공했다. 마지막 날 송정동초와의 경기에서도 5-4로 이기며 우승을 확정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수창초는 이번 우승으로 오는 5월 천안에서 열리는 회장배 광주 대표로 출전하게 됐다. 준우승팀 송정동초도 함께 대표로 나간다. <대상내역> ▲우승: 수창초 ▲준우승: 송정동초 ▲최우수선수상: 김민재(수창초) ▲우수투수상: 배서진(수창초) ▲타격상: 양승건(1,000·2타수2안타·수창초) ▲최다도루상: 서준원(4개·송정동초) ▲최다타점상: 이하늘(6타점·수창초) ▲감투상: 문태균(송정동초) ▲미기상: 김민재(송정동초) ▲감독상: 류창희(수창초) ▲지도상: 정장식(수창초 교감)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